

[하나머티리얼즈(166090), 신규설비 구축 한 달 만에 양산 성공]**하나머티리얼즈, 신규공장서 생산된 '대구경 실리콘 잉곳' 첫 출하**

- ▶ 日 TEL사 공급용 대구경 실리콘 잉곳 양산 개시... 신규 생산라인 도입 한달만에 양산 돌입
- ▶ 생산라인 증설 효과로 시장 선점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목표

<2018-12-13> 하나머티리얼즈가 신규설비 구축 한 달 만에 대구경 실리콘 잉곳 양산에 성공했다.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하나머티리얼즈(166090, 대표이사 오경석)는 13일 백석사업장에서 오경석 대표이사 등 20여 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생산라인의 대구경 실리콘 잉곳 첫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된 제품은 직경 400mm이상의 대구경 실리콘 잉곳으로,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TEL(Tokyo Electron;도쿄 일렉트론)사에 제품으로 제작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하나머티리얼즈 회사관계자는 "지난 11월 신규 생산설비가 도입됐고 한 달 만에 안정적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처럼 생산라인의 확대 및 양산이 단기간에 진행돼, 향후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경쟁력이 입증된 셈"이라고 전했다.

향후 하나머티리얼즈는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대구경 실리콘 잉곳 전용 생산라인을 늘려 현재 대비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정용 대구경 부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대구경 실리콘 잉곳 No.1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오경석 대표이사는 "실리콘 잉곳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모품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자사 제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차별화된 잉곳 그로잉 기술력과 소재 생산부터 부품 가공까지 이어지는 독보적 일관생산체제를 바탕으로 대구경 실리콘 잉곳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No.1 Provider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머티리얼즈는 대구경 실리콘 잉곳 일관생산체제를 보유한 기업으로, 차별화된 단결정 잉곳 그로잉 기술 기반 국내 실리콘 부품(Si Parts)부문 M/S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정 내 소모품 사용이 늘며 하나머티리얼즈의 실적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매출 613억 원, 2017년 매출 1,02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동기실적을 상회하는 1,2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부품 수요 급증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업계 내 기존 설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교체 및 신규추가 설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수요도 급증해 사상최대 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자료문의 : 하나머티리얼즈 정형재 차장 (041-410-1255)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선임 (02-6011-2000 #121)

[참고자료 - 제품 출하식 사진]



[사진 설명 : 하나머티리얼즈 대구경 실리콘 잉곳 생산라인 초도 생산을 기념하는 출하식에서 오경석 대표이사(사진 좌측 다섯 번째)를 비롯한 임원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설명 : 하나머티리얼즈 대구경 실리콘 잉곳 제품 출하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